

# 새로 배움터 이렇게 만들어 갑시다.

## ☞ 글의 순서

0. 새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1. 여학생회는 새터에서 이것을 말하자.(전체 기조)
2. 새터에서 여학생회가 하는 일
  - \*상설마당
  - \*전체시간
3. 과여학생회는 새터를 이렇게 준비해 봅시다.
4. 헌내기 교양

## 0. 새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 ● 그동안의 새터를 돌아보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총여와 여학단위가 함께 새터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총여가 제때에 새터의 상을 잡아오지 못함으로 인해 단위와 그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에따라 총여와 단위가 각각의 내용으로 새터를 준비하고, 자체 역량이 되지 않는 단위에서는 호지부지 되어 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새터에서 새내기들에게 풀어낼 수 있는 여학생회 내용은 늘상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얼마 안되는 여학생회 식구들인 만큼 같은 감으로 함께 복현의 새내기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또한 헌내기들의 교양에 대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헌내기들 조차 여학생회나 여학이 풀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없기에 새터에서 새내기들에게 던져지는 여학생회 고민을 제대로 풀어줄 사람이 딱히 없었던 것입니다.

99년을 만들어 갈 주역인 새내기를 맞는 첫 사업! 그러나 그 준비에 있어 소극적이고 관성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일방적인 흐름을 총학에 의존한채 우리가 맡은 부분만, 그것도 떼우기 식으로 준비하지 않았나 합니다. 또한 과여학생회도 여학생회의 주체적인 관점으로 새터를 준비하지 못하고 학생회에 맡려가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총여와 단위가 함께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 ● 그러나 99년의 새내기 배움터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 1) 새터의 상, 전체 기조를 단대 여학생회, **과 여학생회**까지 꼭 함께 합니다.
- 2) **헌내기 교양**을 빵빵하게..
- 3) 과 여학생회와 함께 **여학생회의 내용**으로 새터를 준비할 것에 대해 고민합니다.
- 4) 새내기와 여학생회의 첫 만남.. 관성이 왜 말입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새내기를 만납니다.

## 1. 여학생회는 새터에서 이것을 말하자

99학번 새내기는 새천년을 열어갈 세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 세기를 마무리하는 99년에 대학생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99학번 새내기들에게 부여되는 의미는 크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한 중요하게 놓이는 것이 여학생회, 우리 새내기 여학우들의 역할입니다.

「여학생운동은 여성이라는 이름아래 여러 시대 모순을 짊어지고 일정정도 객체로서의 삶을 강요 받아야 했던 우리 여성들의 문제를 자각하고 대학에서부터 여학우들의 삶의 주체로, 이 시대의 주체로 세워내고자 하는 것이며 여학생회의 지향역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새터에서 아주 크게는 여성이, 여학우들이 주체로서 자신의 삶과 시대를 개척해 가야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새천년을 열어갈 시기, 새세상을 열어가는 지금에 있어 기존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 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성, 여학우의 주체적인 힘으로 현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 없이는 결코 우리를 위한 새 세상은 오지 않는 다는 것! 그래서 이번 새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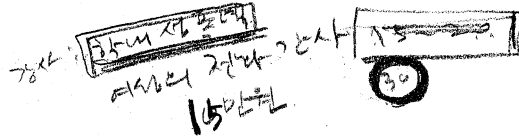
여성이 열어내는 당찬 새하늘, 새땅??

## 2.새터에서 여학생회가 하는 일

0) 총여학생회에서는 4개의 상설 마당과 전체시간을 준비합니다.

상설마당은 대학의 성문화-성폭력, 연애학 개론, 강제 중군 위안부문제, 주한미군범죄 에 관한 마당으로 꾸며지며 간단한 내용 풀이와 실천활동으로 꾸며집니다.

전체시간은 간단한 문예판과 그의 문예판의 내용을 풀어주고 여학생회를 알리는 시간으로 꾸며질 것입니다.



### 1)상설 마당

#### ♣ 대학의 성문화

내용>대학의 성문화를 특히 성폭력을 중심으로 풀어가며,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을 새내기와 얘기하고 이후 함께 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실천>성폭력 없는 복현, 성폭력 규제 학칙 제정의 내용이 담긴 커다란 그림을 새내기들의 지문 도장으로 그림니다.지문 도장은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며 이후 학칙 제정에 함께 하겠다는 새내기들의 약속입니다.이 그림은 99 새내기의 명의로 민족 복현에 전시 할 것입니다.

#### ♣ 연애학 개론

내용>요즘은 청소년들이 이성을 접할 기회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서로에 대한 왜곡된의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대학에서의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을 위하여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소위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연애란 무엇인가의 내용입니다.

실천> 이런 내가 되어야 한다 - 이후 연애나 인간관계에 있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관계를 위한 자기 나름의 지침서, 서약서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연애에 대한 나의 생각, 경험담을 얘기할 수 있는 1분 발언대가 있습니다. 여서 해갈피.

#### ♣ 주한미군 범죄

내용> 주한 미국 범죄의 실상이 잘 나타나 있는 비디오를 봅니다.

실천>노래 개사하기- 주미철, 반미에 대해 새내기가 느낀 만큼을 그들과 친숙한 노래를 통해 표현합니다. 그 노래는 녹음해서 새내기 들에게 선물할 생각..아니면 가사와 함께 참가단들의 사진을 남길 생각

## ♠ 강제 종군 위안부

내용> 위안부 문제의 현대적 의미 등 위안부 문제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연계하여 준비합니다.

실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퀴즈 풀이나, 2000년 전범재판과 연결하여 새내기들이 직접 모의 재판을 해보는 것 등..

● 실천 활동에 대한 창발적인 고민이 더 필요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2) 전체시간 (3시간) 총학문제 시간

총여 30~40분. (그분 문제. 내지는 내용을 푸는 시간) 자봉단 (학생 1인당 1인)

## 3. 현내기 교양

### 1) 현내기의 마음가짐

새터를 준비하는 현내기의 마음은 각기조금씩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 통크게 합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내기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제도 교육의 틀을 깨고 올바르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볼 수 있게 선배들이 도와주겠다는 마음입니다. 선배가 뭐그리 대단하고 잘 알아서가 아니라 이제 같은 복현인으로서 같은 과 사람으로서 함께 하고 싶다는, 그래서 어설프지만 너의 첫걸음을 도와주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총여에서 현내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도 바로 이것입니다. 현내기들의 후배에 대한 그 정성으로 이제 여성다움, 남성다움, 왜곡된 성의식과 교육에 간혀 있는 우리 새내기들이 올바르게 사람을, 세상을 볼 수 있게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나역시 여학생회 내용이라고는 아는 바가 없어서 새내기에게 해 줄 말이 없다가요? 꼭 뭘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조금만 생각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새내기를 환영하는 마음, 선배로서 조금더 말해주고 싶다는 마음이면 누구라도 여학생회의 내용이 그리 먼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 2) 올해 여학생회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학생회는 우리 여학우들이 우리에게 가해진 문제를 자각하고 그것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자기 삶의 주체, 시대의 주체로 나아가고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또한 올해 여학생회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새천년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새세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세상을 연다는 것은 이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낸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여성을 억압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많은 문제들, 시대 모순이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들을 여학우의 관점으로 여학우들이 주체적으로 함께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도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새세상의 열매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모순은 우리가 해결해 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어떻게 새내기에게???

그리 어려운 얘기만은 아닙니다. 시대를 바꾸는 변화의 시작은 나를 나로 세워내는 것입니다. 남성, 혹은 여성으로서의 삶에 갇힌 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나를 인식하고 나를 억압하는 시대 모순들을 바로 바라본다면 누구나 삶의 주체로 시대 변화의 주체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 3) 문예관 해설

아직 문예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기회가 되면...

### 4) 이런건 주의합시다.

♣ 혼숙

|새내기들이 대학에 와서 가장 놀라는 점.. 남녀가 아무렇지 않게 같이 잔다는 것. 새롭고 재미있을 수 있는 문화입니다. 서로를 성적으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면에야 문제될 것이 없겠지요. 그래서 순진한 새내기들에게 혼숙문화는 장려되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학이나 다른 대학에서나 새터, 모꼬지 등의 혼숙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례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의식이 바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혼숙이 그냥 장려될 대학 문화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심각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상처는 단순히 새터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 새내기의 대학생활과 인생관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새내기들이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선배가 됩시다. 강침대 2배씩 → 혼숙금지 (규칙대).

#### ♣ 술자리 문화

| 요즘도 음란가요를 분위기 띄우는데 쓰십니까? 설마...

여후배들을 술자리의 꽃으로 생각한다거나 과도한 신체 접촉등도 설마 선배님들이 그러시진 않겠죠? 소중한 우리 새내기 들인데...

### 4.과여학생회는 새터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 여학생회가 과 학생회 집행부는 아닙니다. 학생회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적게라도 우리 내용을 뽑시다.

● 참여와 새터의 상, 의의 등을 합의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여,단여,총여가 함께 만드는 새터가 되었으면...

● 과 학생회와 논의하여 꼭 여학생회의 시간을 확보합시다.

● 뭔가 해보고는 싶은데 욕심만 앞서고, 시간도 일할 사람도 없고, 갑갑해하기만 하다가 흐지부지 지나고 마는 새터가 많았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할 수 있는 작은 것 만이라도 합시다. 과여의 수준과 여건에 따라 그러나 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학생회 이름으로 자보를 씁시다. 기본적으로 여학생회가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 그외에도 소모임과 연계가 된다면 소모임의 내용이나 과여에서 풀고 싶은 간단한 여성문제들에 대한 선전이 있으면 좋겠지요?단순히 보는 자보 말고도 새내기들이 직접 의견이라도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참고 내용은 별첨)

● 여학생회에서 풀수 있는 내용의 예 (필요하시면 요구하세요, 총여학생회로)

'새로쓰는 동화이야기-동화를 여성학적 관점에서 재구성..

'여성 관련 퍼즐, 퀴즈 게임

'남성다움, 여성다움에 대해..

'간단한 성교육이나 구성애의 성교육에 대한 토론

'술자리 음란가요에 대하여.